

## 새로 발견된 高句麗 遺民 「高延福 墓誌銘」

안정준(서울시립대)

필자는 2020년 4월 9일에 경북대학교에 계시는 윤용구선생님으로부터 중국 학술지에 고구려 유민에 대한 새로운 묘지명이 소개됐다는 연락과 함께 논문 한편을 받았다. 王连龙·丛思飞이 『中国书法·书学』 2019-10에 기고한 새로운 묘지명에 대한 글이었다.<sup>1)</sup> 고구려 왕족의 후손임을 언급했던 高延福이라는 인물의 墓誌銘에 대한 것이었는데, 윤선생님으로부터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니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해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간략한 글을 일단 올리게 되었다.



「高延福墓誌銘」 사진 (王连龙·丛思飞, 2019, 「唐「高延福墓志」考略」, 『中国书法·书学』 2019-10)

王连龙·丛思飞到 의하면 「高延福墓誌銘」(大唐故中大夫守内侍上柱國渤海高府君墓誌銘)은 청 건

1) 王连龙·丛思飞, 2019, 「唐「高延福墓志」考略」, 『中国书法·书学』 2019-10.

를 53년인 1788년에 西安 白鹿原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옮겨졌다가 현재는 淮安 楚州区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논문에는 묘지명의 전체 글자들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과 함께 판독문이 공개되어 있다.

誌文에 따르면 묘주의 이름은 (高)福이요, 字는 延福이며, 출신은 渤海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渤海는 勃海郡의 異稱으로서 지금의 河北省 沧州市 남동쪽에 있었던 漢代 이래의 郡名이다. 고구려 보장왕의 손자인 高震과 曾孫인 高氏夫人의 묘지명에 각각 ‘勃海人’(渤海人)으로 출자를 표기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같은 왕족 후손을 표방한 高延福이 자기 가문을 발해군에서 기원했던 것처럼 표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어지는 誌文에서 “啟土受氏 明諸典冊”이라는 표현이 주목되는데, 이는 “강토를 개척하여 (나라를 열어) 姓氏를 받았는데, 典籍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해석된다. 『魏書』 高句麗傳의 ‘與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爲氏焉’이라는 기록을 연상케 하는 문구이다. 또한 이미 발견되어 『全唐文新編』에 실려 있던 「唐故高內侍碑」의 기록에 의하면, 內侍 高延福은 당의 고구려 정벌 이후 나라 잃은 왕의 族屬으로서 환관의 직을 담당하게 되었다고도 기술되어 있다.<sup>2)</sup> 이러한 묘지명과 비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高延福은 본래 고구려 왕실 출신으로서, 고구려의 멸망 이후 당에 들어와 환관이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高延福이 구체적으로 고구려 왕실 가운데 누구의 자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王連龍·丛思飛은 묘지명에 기록된 高延福의 曾祖인 權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榮留王(高建武) 23년(640) 봄 2월조에 “世子인 桓權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태종이 위로하고 선물을 특별히 후하게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3)</sup> 이때 영류왕의 아들인 환권은 사신의 임무를 띠고 당으로 갔으므로 이미 성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高延福의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開元 11년(723)에 6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므로 역추산하면 당 고종 때인 顯慶 6년(661)에 출생했을 것이다. 이 경우 高延福의 나이를 감안할 때, 환권이 대략 그의 증조라고 보아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으로 넘어간 백제·고구려계 인물들이 이름을 單字로 바꾼 경우들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王連龍·丛思飛의 이러한 추정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현전하는 사료를 최대한 활용한 결과일 것이다. 다만 ‘桓權’과 ‘權’을 동일한 인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더 필요해보인다.

한편 高延福이 당으로 끌려간 시점에 대해 王連龍·丛思飛은 總章元年(668) 9월 21일에 遼東道行軍總管·英國公이었던 李勣이 평양성을 함락시킨 뒤 보장왕(高藏)과 그의 아들 福男·德男과 대신 등 20여만 구를 당으로 끌고 갔던 기록에 주목하였다. 왕족이자 8세의 어린 나이였던 高延福 역시 다수의 왕족과 지배층이 끌려간 이 행렬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高延福이 당에 끌려간 뒤 환관이 되기까지의 행적에 대해 묘지명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舊唐書』 高力士傳에 의하면 高延福은 입궁(入宮) 전에 측천무후의 조카였던 武三思의<sup>4)</sup> 집안에서 奴僕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으로 끌려간 고구려 주민들이 노비가 된

2) “內侍高延福者，將軍力士之慈父也。粵自西雲宦遼東明銜璧，以亡王之族，處巷伯之官”(「唐故高內侍碑」). 원문 출처는 『全唐文新編』 卷227 張說의 「唐故高內侍碑」이며, 周紹良 主編, 2000, 『全唐文新編』, 吉林文史出版社, 2575쪽에 실려 있다. 『文苑英華』 卷931 宦官上에도 「內寺高延福碑」의 원문이 실려 있다.

3) “春二月 遣世子桓權入唐朝貢 太宗勞慰 賜賚之特厚”(『삼국사기』 고구려본기 榮留王 23년조)

4) 측천무후의 오빠였던 武元慶의 아들.

사례가 많음은 기록상 확인되지만, 왕족이었던 高延福이 어떤 이유로 노비 신세를 면치 못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무삼사는 어린 노비 高延福을 정치적 목적으로 황궁에 바쳐서 거세를 시키고 환관이 되도록 했다. 이후 高延福은 당 고종으로부터 현종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황제들을 곁에서 모시며 활동했다. 이처럼 무삼사는 高延福이 입궁하여 환관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으나, 高延福의 묘지명에서는 무삼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 현종대에 이미 무삼사가 위황후·안락공주 일파와 함께 정치적으로 몰락해 처형당한 뒤에 작성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당 현종 때의 유명한 환관인 高力士가 바로 高延福의 養子였다는 것이다. 고력사는 훗날 현종이 되는 李隆基가 710년에 정변을 일으켜 위황후 일파를 제거하고, 713년 太平公主 일파의 모반을 진압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sup>5)</sup> 高延福이 內侍의 품계 가운데 최고위직인 內侍省長官을 지낸 것은 모두 양자였던 고력사의 공적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묘지명과 비문의 내용에 따르면 高延福은 본래 고구려의 왕족으로서 고구려 멸망 당시 8세의 어린 나이에 당으로 끌려갔다. 이후 長安에서 무척친 집안의 노비로 전락했다가 무삼사에 의해 황궁에 바쳐져 환관이 되었으며, 이후 고종 이래의 여러 황제들을 두루 섬기면서 고력사를 양자로 두기도 하는 등, 7세기 후반~8세기 초 당 황실의 쟁투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王连龙·丛思飞이 논증한대로 高延福이 정말 영류왕의 아들이자 세자였던 환관의 손자라고 한다면, 영류왕의 직계가 연개소문 정변을 겪은 뒤에도 살아남아서 멸망할 때까지 왕실의 일원으로서 존속했다는 것인데, 이는 꽤 흥미로운 사실이다. 다만 ‘桓權’과 高延福의 증조인 ‘權’의 이름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양자의 관계를 확실히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생각도 든다. 즉 환권이 연개소문의 정변 때 정말 생존해서 멸망 시까지 왕족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또 高延福이 스스로 고구려 왕가의 자손임을 언급한 것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당 현종 즉위 전후인 710년대의 정변 과정에서 유원정·高德·王景曜·王毛仲 등 적지 않은 고구려 유민 출신의 인물들이 조력한 바 있다. 이때에는 高延福도 생존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양아들인 환관 고력사와 여러 고구려 유민 출신 인물들이 참여했던 위 정변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분명히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고연복의 집안에는 양자인 고력사 이외에도 다른 구성원들이 있었다. 東京國立博物館에는 唐의 高延貴가 조성했다고 새겨진 如来三尊佛像이 있는데, 銘文에 의하면 高延貴는 渤海人으로 독실한 佛教신자였다고 소개돼 있다. 그는 고연복과 籍貫이 일치하고 동시기 인물인 것으로 보아 형제 관계였다고 추정된다. 「고연복묘지명」의 판독과 역주,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는 『목간과 문자』 24호에 소개할 예정이다.

5) 고력사가 고씨 성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高延福의 양자로 들어가면서부터였다고 전한다[“坐累逐出之中入高延福養爲子 故冒其姓”(『新唐書』卷207 列傳 第132 宦者上 高力士)].

● 王连龙·丛思飞的 논문에서 제시된 「高延福墓誌銘」의 판독문

○ 志盖:

大唐故高内侍墓志铭

○ 志文:

大唐故中大夫守内侍上柱国渤海高府君墓志铭并序

麗正殿修撰學士校書郎孫翌字季良撰

夫勞息之理，達人一之。然時當大明，職近皇位，父子并肩而事主，君臣同體而多歡，而萬石之慶，一朝無怙，可不悲矣。府君諱福，字延福，渤海人也。啟土受氏，明諸典冊。曾祖權，祖祖，父護，並斝如石焉，厥有全操。安時處順，憂患不能入，懲忿窒欲，軒冕莫之榮。且豕貴隨時，雅明尊祖。我府君始議從政，有光前烈。傳曰九變復貫，知言之選。此之謂矣。府君幼而晦明，長而藏用，體敬仲之慎，兼伯楚之忠。解褐拜文林郎，守奚官丞。秩滿，遷本局令，稍轉宮闈令，兼謁者監。竊以聖人之教，父因子貴。府君之寵嗣曰力士，我大君之信臣也。頃國步多艱，而守謀立順，以功拜右監門大將軍，兼食本邑。盡力王室，志存匡輔，元勳爛然，天眷攸屬。府君以大將軍之故，特拜朝議大夫，守內侍員外置。尋遷中大夫，正除本官。出入四代，凡更六職，行不違仁，言必合禮。由是無黜擯，無怨尤，恭而能和，簡而且肅，德著乎宮掖，名成乎寮友。而稟命不融，識者歆歔。以開元十一年十二月二十五日，終於來庭裏之私第，春秋六十有三。大斂之日，天王遣中使臨吊，贈絹三百匹。明年太歲在甲子正月壬戌朔廿一日壬午，遷窆於京兆府白鹿原之西隅，禮也。緣喪事儀衛，並皆官給，可見哀榮始終，禮泊泉壤。初府君旁通物情，往往造極，以爲生者神之主，死者神之歸，歸乎本真，曷足懷也。乃謀龜筮，相川原，經兆域，畚封土遂，自爲安神之所，而松檟蒼然矣。君子謂高公於是乎。知命，府君自公之餘，存乎上善，每持專一之行，深入不二之門。範聖容，寫真偈，雖衣食所窘，此心不易，斯又回響之能事也。將軍茹荼長號，哀述舊德，竊慚不敏，敢讓其詞。銘曰：

佳城一閉兮三千年，棘人變變兮訴窮泉。出郭門而一望兮，見隴樹之生煙。君寧見賓禦之惻默，皆撫墳而涕漣。